

2021년 9월 1일 ~ 9월 7일
양성평등주간



2020년부터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여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인권선언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의 여성 김소사, 이소사가
‘여권통문’(여성이 평등한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 주장) 발표한 날을 기념하여
매년 9월 1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에도 여권통문의 정신을 잇는
선각여성이 있습니다.



최정숙
1902 ~ 1977



고수선
1898 ~ 1989



강평국
1900 ~ 1933

최정숙

1902 ~ 1977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감으로서
여성교육과 권익향상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국가가 발전하고
가정과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성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고수선

1898 ~ 1989

제주 최초 여의사, 여성운동가, 사회사업가로서
여성계몽운동,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우리 30만 도민의 살림을 마련하는데
남자들에게서만 맡겨서야 여성으로서 안심할 수 있나요?
나는 남자사이에 끼어 여성로서는 중대한 일을
여성의 편에서 부르짖고 실현하겠습니다.”

강형국

1900 ~ 1933

제주여성 최초 일본유학생이며
항일운동가였습니다.



“나라에 봉사하는 길은 여성도 공부하는 길이다.
여자라고 반드시 남성들에게 뒤지란 법은 없다.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가 남성과 동등해야 한다.”



여권통문의 정신으로
‘더 좋은 세상, 성평등 제주를 향해’

제주에서는 제주여성 선각인물 발굴사업을 통해
국가적 인물로 전국화 시키고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영상제작사업을 통해
평범한 여성의 삶 속에서 성평등 가치를 찾으며

‘제주여성 4·3의 기억’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4·3에서 지워진 여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여성의 삶이 곧, 제주역사입니다.

• 2021년 양성평등주간 •